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4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7월 2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전국 10곳에서
금속노조
파업 결의대회

전국 곳곳에서 금속노조 파업투쟁 전개

22일 전국이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금속노조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온 지역에 파업의 목소리가 퍼지도록 했고, 민주노총의 다른 산별노조는 서울로 상경해 위력적인 투쟁을 벌였다. 이번 파업투쟁은 통상임금, 노조파괴 등의 노동현안 문제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까지도 함께 요구하는 의미의 투쟁이었다.

노조파괴 분쇄! 임단투 승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부는 22일 14시 대전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노조파괴를 방관하고 동조 해온 노동부가 노조파괴의 공범이라고 규탄하면서 지금도 반복되는 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통해 대법원 판결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현장의 임금을 강탈하는 만행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통상임금이 올해 임단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도 노동부 지도지침 때문에 현장이 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날 조민제 지부장은 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한 전체 지회장들에게 머리띠를 묶어주며 올해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지회장들은 올해 투쟁의 승리를 위해 지부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하나로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얼마 전까지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내려온 유성영동지회의 이정훈 지회장은 편치 않은 몸상태인데도 결의대회에 참가해 조합원 동지들에게 힘을 주기도 했다.

8월 15만 총파업까지 간다!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이 이제 시작됐다. 22일 1차 총파업은 쟁의권을 확보한 4만 6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8월에 이어질 총파업 투쟁은 15만 금속노조가 모두 함께 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지부교섭도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여름휴가 이후 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 올해 투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파업보다 더 강력한 파업투쟁을 만들자. 지부 전 조합원의 힘과 금속노조 15만의 힘을 하나로 모아 2014투쟁의 승리로 나아가자!

15만의 단결투쟁으로 2014투쟁 승리하자!

세월호 100일, 아직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정확히 100일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도 국회에서는 답이 없다. 그러는 사이 유가족들에 대해 악의적인 선동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이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나? 이 같은 행태는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은 점점 더 모이고 있다. 국회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유가족들이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24일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아 충북과 대전에서도 촛불행동이 이어졌다.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라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 촛불행동 참가자들은 ‘아직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이야기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냐’며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노동이 중심에 서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살기 위해 그리고 살리기 위해 우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평택을 지역 후보로 출마한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의 출마 선언문 글귀다.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로 생명을 잃고 수백의 생명을 세월호 침몰로 잃었지만 그 책임과 원인을 밝히거나 사태의 재발을 막을 제도 개선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 출마이유와 닮아있다.

-당선하면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비정규직문제와 노조탄압에 문제의식을 키워왔다. 노동 의제로 국회에서 활동하고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 사람의 무소속 당선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다.

노동자 후보가 평택에서 당선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기존 정당 후보들과 완전히 차별화한 공약과 의제로 당선되는 것이다. 평택 주민들과 국민 정서가 비정한 사회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알게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쌍용차 사태같이 국민들이 고통 받는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무기력함이 정부와 여당에 계속 기회를 주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어제 쌍용차 현장순회를 했다. 반응이 어떤가?

아무래도 현직 지부장이다 보니 복직문제만 얘기하려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김규한 기업노조 위원장과 만나 “경영진은 언젠가 떠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남지 않는다. 발전전망을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 선거를 통해 해고자 이야기만 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평택의 중요한 기업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공장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는 덕담을 많이 들었다. 나 또한 공장이 그림다.

진기승 열사 망월동에 영원한 안식 들어갔다

진기승 노동열사가 망월동 묘역에 영면했다. 신성여객의 비인간적인 노동탄압과 해고에 맞서 자결을 선택한 진기승 노동열사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자장이 22일 치러졌다. 열사가 자결을 선택한지 84일, 돌아가신지 50일 만이다.

오전 7시 전주 대송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이 시작됐다. 유족들은 열사의 관이 모습을 보이자 오열을 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전주 시청 앞에서 신성여객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진행됐다.

장례위원장인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조사에서 “진기승 노동열사의 선택은 아직도 노동자가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진기승 노동열사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자들이 더욱 열심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구행렬은 노제가 열리는 전주시 풍남문 광장, 임실군 관촌역에 이어 열사가 영원히 안식을 취할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향했다. 오후 8시 유족과 동료들의 오열속에 하관식이 진행됐다.

남상훈 공공운수노조 전북버는지부장도 “생전에 진기승 열사를 보다 감싸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모든 버스노동자가 대우 받는 세상을 위해 단결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사 유가족들도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또렷이 기억된다”며 “장례를 위해 도움 주신 민주노총과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7.22 금속노조 1차 파업 결의대회>



<7.22 금속노조 1차 파업 결의대회>



<7.22 금속노조 1차 파업 결의대회>



<7.22 금속노조 1차 파업 결의대회>